

전남도, 도민 문화 향유 기회 대폭 넓힌다

취약계층 여행·문화이용권 지원 청년-섬 연계 청춘어람 사업 추진 농업박물관 실감미디어 무료 체험

전남도가 올 한해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청춘어람 육성, 통합문화이용권스프츠강좌이용권, 농업박물관 체험존 등 관광문화체육 분야 새 제도와 시책을 통해 도민 복지 증진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계획이다.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도민의 관광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14억원을 확보해 운영한다. 전남지역 관광지 1박 2일 여행비용 중 14만

원 이내로 여행사를 통해 지원한다. 대상은 전남 거주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및 장애인 등이며, 1만여명을 선발한다. 사업 공고 후 거주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들의 끼와 아이디어를 관광 분야에서 펼치는 청춘어람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이 직접 섬에 체류하면서 섬 전문가, 주민과 함께 섬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상품을 기획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18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섬 스테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 10명 내외의 전남 섬 관광 기획자를 선발한다. 기획자로 선발되면 우수사례 현장답사, 섬 2주 살아보기, 체험형 섬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2개월간 실무 인턴십 교육을 받는다. '청년이 만들어 가는 여촌관광

의 요람'이란 뜻이 담긴 이 사업을 통해 MZ세대를 겨냥한 젊은 감각의 체험형 섬 관광상품 개발이 기대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127억원의 사업비로 만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만 8000여명이 증가한 12만6000여명에게 연간 10만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2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ARS 전화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전남에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1400여 개로, 카드는 직접 가맹점을 방문해서 사용하거나,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주문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쓸 수 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사업비 30

억원을 투입해 도내 가맹 체육시설 이용 시 1인당 최대 월 8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만5~18세 유·청소년과 만19~64세의 장애인, 약 3500명이다. 누리집 또는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전남도농업박물관은 10억원을 들여 오는 7월까지 실감미디어 체험을 할 콘텐츠를 구축한다.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농업문화 실감 체험 플랫폼 '확장현실(XR) 헤리티지 팜'을 만들어, 누구나 무료로 체험토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교육·홍보·컨설팅 등 지역기업 ESG 경영 지원 광주시, 사업자 공모

광주시는 "기업 ESG 경영 인식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역량 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ESG 경영'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ESG 경영에 주목하고, 전국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보조사업자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하고 있으며, 기업 ESG 경영과 관련한 유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및 조직·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다.

사업내용은 ESG 경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기업진단 및 컨설팅 등이며,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 기업육성성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순환형 광주시 기업육성성과장은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비대면 산업 발달 등으로 환경변화에 관심이 확대되고 안전·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강조하는 ESG경영이 수출 경쟁이나 금융 거래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치로 평가받고 있다"며 "지역기업에도 ESG 경영이 확산돼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코로나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629명 모집 생계부담 경감·생활방역 기대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방역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다중 이용 공공시설에 생활방역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다. 16억원을 들여 22개 시·군 329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시·군 특성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과 서민생활 지원형 등 9개 사업을 추진한다. 78억원을 확보해 22개 시·군 13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도민 중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사람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4억원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개월 동안 시급 9160원을 받고, 주휴,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군별로 모집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바라던 시·군 공공일자리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공공형 지역일자리사업으로 296억원을 들여 지역방역일자리 407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503명, 희망근로지원 5226명 등 총 713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 종료된 희망근로지원사업 등의 추진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악 선별검사소 방문한 김영록 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지역사회 확산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무안군 삼향면 남악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 방역대책 상황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남 읍면동 3곳 중 1곳 어린이집 없어 보육 부담 가중

전남여성가족재단 보고서 전체 297개 중 95곳 미설치

전남지역 읍면동 3곳 중 1곳은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아 부모의 보육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재)전남여성가족재단이 내놓은 '전남 보육서비스 현황과 지원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전남 297개 읍면동 중 95개(32%)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 지역 4개, 읍면지역 91개로 농어촌에 집중됐다. 어린이집 미설치 읍면동 95곳을 거주 영유아 수로 구분하면 0-9명 거주 읍면동 6개, 10-19명 28개, 20-29명 19개, 30-39명

11개, 40-49명 14개, 50-59명 8개, 60-99명 7개, 100명 이상 2개 지역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 6개 있었다.

나주시 영산동, 곡성군 목사동면, 보성군 웅치면, 영광군 낙월면, 곡성군 결면, 오곡면 등 6개 읍면동이다. 이들 지역에는 읍면동별로 적게는 10-19명, 많게는 40-49명의 영유아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보육 서비스 공백이 나타난 것이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 생겨나는 이유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보육교사 확보 곤란 때문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부모들의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리검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은 "영유아 등

아동들은 나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높은 보육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지역별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보육 확대,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 강화 등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 도내 어린이집 수는 2016년 이후 감소세로 나타났다. 2016년 1251개소에서 2020년 1084개소로 5년 사이 167개소가 줄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2020년 기준 가정어린이집 343개소(39.2%), 민간어린이집 334개소(30.8%)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 168개소(15.5%),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156개소(14.4%), 법인·단체어린이집 47개소(4.5%), 직장어린이집 34개소(3.1%)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광주시, 165곳 특별단속

광주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165곳을 특별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대기 배출·방지사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대기오염 방지사설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켜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한다. 적발된 곳은 행정처분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현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사건을 꾸준히 단속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총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일반편입(3학년)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학사편입(3학년)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형일: 2022. 1. 25(화)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